

2019서울시 1회 9급 국어(A책형) 영보이 국어 자세하고 재미있는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짧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완벽 정리)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완벽 정리)

◆ 음운(音韻) :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로, ‘님’과 ‘남’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ㅣ’와 ‘ㅏ’, ‘물’과 ‘불’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ㅁ’과 ‘ㅂ’ 따위를 이른다.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의 ‘ㄹ’을 영어에서는 ‘l’과 ‘r’의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ㄹ’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한다.

◆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다.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있고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강약(강세), 고저(높낮이), 길이 등이 있다.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X)

◆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비분절 음운으로 음운에 포함된다.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O)

◆ 음운의 최소 대립쌍 :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함

◆ 예 - 덕 : 떡 < ‘덕’과 ‘떡’은 ‘ㄷ’과 ‘ㅌ’으로 인해 의미가 달라진다. 이 ‘ㄷ’과 ‘ㅌ’이 최소의 대립쌍이 된다.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O)

◆ 변이음 : 같은 음소에 포괄되는 몇 개의 구체적인 음이 서로 구별되는 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의 음. 예를 들어, ‘감기’의 두 ‘ㄱ’ 소리는 같은 문자로 표기하나 실제로는 앞의 ㄱ은 [k], 뒤의 것은 [g]와 같이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지는데, 한 음운으로 묶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성을 그 음운에 상대하여 이른다.

◆ 따라서 ‘감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앞의 ‘ㄱ’은 ‘[k]’라 해서, 뒤의 ‘ㄱ’은 것은 ‘[g]’라 해서 두 개의 음운이 되는 것이 아니고 ㄱ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O)

◆ 음운(音韻) :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

정답 : ①

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22)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22)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O)

◆ 주어와 서술어, 연결어미 등의 호응이 매끄럽게 이어져 올바른 문장이다.

◆ 금융 당국은(주어) ~ 내다보면서(연결어미) ~ 예측하였다.(서술어)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X)

◆ ‘작성 내용의 정정’에 대한 서술어가 없으므로 서술어를 따로 넣어주어야 한다.

◆ 옳은 문장: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X)
- ◆ ‘보여집니다.’는 이중 피동으로 ‘보입니다’로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 ◆ 보다(능동) - 보이다(피동) / 보여지다(이중피동으로 틀린 표현이다.)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X)
- ◆ 주어가 빠져 있어 어색한 문장이다. 그리고 연결이 어색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옳은 문장: 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단 하루도 드리블 연습을 쉬지 않았다.

정답 : ①

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3) (2019 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p. 163, 169, 170, 349)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脣亡齒寒)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冰)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3)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p. 163, 169, 170, 349)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脣亡齒寒) (X)
- ◆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 순망치한(脣亡齒寒): 脣(입술 순) 亡(망할 망) 齒(이 치) 寒(잘 한).
 - 1)의미: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영보이 암기tip) 이가 없으면 어때. 잇몸으로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 꾹꾹 ~ 아이, 맛 좋다.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 ◆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긴하게 쓰려고 구하면 없다는 말. ㄴ 까마귀 똥도 약에 쓰려면 오백 냥이라 · 까마귀 똥도 약이라니까 물에 깔린다 · 까마귀 똥도 열댓[오백] 냥 하면 물에 깔린다 · 쇠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 하로동선(夏爐冬扇): 夏(여름 하, 개오동나무 가) 爐(화로 로) 冬(겨울 동) 扇(부채 선)
 - 1)의미: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격(格)이나 철에 맞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반의어: 하갈동구, 하선동력
 - ◆ 하갈동구(夏葛冬裘): 夏(여름 하) 葛(참 갈) 冬(겨울 동) 裘(갓옷 구)
 - 1)의미: 여름의 서늘한 베옷과 겨울의 따뜻한 갓옷이라는 뜻으로, 격이나 철에 맞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하선동력(夏扇冬曆): 夏(여름 하) 扇(부채 선) 冬(겨울 동) 曆(책력 력)

1)의미: 여름의 부채와 겨울의 새해 책력이라는 뜻으로, 선사하는 물건이 철에 맞음을 이르는 말. < cf. 책력(冊曆):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 >

☺영보이 암기tip) 밭에 널린 게 개똥인데 막상 필요할 때는 없네. 막내한테 물어봐야 겠네. 개똥아 ~ 개똥아 ~ . 형, 왜 불러? 개똥아, 개똥 가진 거 있어? 뭔 헛소리야! 형이 지금 밟고 있는 개똥이나 쳐먹어라!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氷)

◆ 우물 안의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

◆ 하충의빙(夏蟲疑氷): 夏(여름 하) 蟲(벌레 충) 疑(의심할 의) 氷(얼음 빙)

1)의미: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의심한다(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이 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영보이 암기tip)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에만 있는 것만 믿으니 견식이 정말 좁네. 그냥 평생 우물 안에서만 살아라. 앞다리가 쪽 ~ 뒷다리가 쪽 ~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 ♪ ♪

④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굵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설중송백(雪中松柏): 雪(눈 설) 中(가운데 중) 松(소나무 송) 柏(측백 백, 잣나무 백)

1)의미: 눈 속의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뜻으로, 높고 굳은 절개를 이르는 말.

☺영보이 암기tip) 굵은 나무라도 선산을 지키듯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다 제구실을 한단다. 알겠니? 네, 알겠으니 삼겹살이나 빨리 구워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ㄸㄸ

정답 : ③

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31, 535,)

< 보기 >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① 가는허리 / 잔허리

② 고깃간 / 정육간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31, 535,)

① 가는허리 / 잔허리 (O)

◆ 가는허리: 잘록 들어간, 허리의 뒷부분. = 잔허리

☺영보이 암기tip) 가는 - 잔허리

② 고깃간 / 정육간 (X) → 고깃간 / 푸줏간

◆ 고깃간: 예전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의 고기를 끓여 팔던 가게 = 푸줏간

◆ 정육간이나 육주간은 없는 말이다. 고깃간과 푸줏간이 올바른 표준어이다.

☺영보이 암기tip) 고깃 - 푸줏간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O)

☺영보이 암기tip) 상관 - 계없다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O)

◆ 기세부리다: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를 드러내 보이다.

☺영보이 암기tip) 기세부리 - 피우다

정답 : ②

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5)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79, 180, 183, 187, 363, 488)

< 보기 >

ㄱ. 오죽헌 Ojukeon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5)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79, 180, 183, 187, 363, 488)

③ ㄴ, ㄹ (O)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O)

◆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안의 표기를 허용함) /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4항(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발음은 [봉남]이지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Bong'가 아니라 'Bok'가 옳다.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

ㄹ. 합덕 Hapdeok (O)

◆ 합덕은 [합떡]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tt’가 아니라 ‘d’가 옳다. 또한 ‘합’의 [ㅂ]으로 소리가 나지만 첫소리가 아니라 받침이므로 ‘b’가 아니라 ‘p’가 옳다.

◆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 구미 Gumi / 영동 Yeongdong / 백암 Baegam / 옥천 Okcheon / 합덕 Hapdeok / 호법 Hobeop / 월곶[월곶] Wolgot / 벚꽃[번꽃] Beotkkot / 한밭[한밭] Hanbat

ㄱ. 오죽헌 Ojukeon (X) → Ojukheon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4: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목호(Mukho) / 집현전(Jiphyeonjeon) > / 오죽헌은 [오주켄]으로 발음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으므로 ‘Ojukheon’처럼 ‘h’를 밝혀 적어야 한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ㄷ. 선릉 Sunneung (X) → Seolleung

◆ ‘ㅌ’는 ‘u’가 아니라 ‘eo’로 적는다. ‘u’는 ‘ㅜ’가 옳다.

◆ 로마자 표기법 제2항 [붙임2]: ‘ㄷ’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ㄷㄷ’은 ‘ll’로 적는다. < 구리 Guri / 설악 Seorak / 칠곡 Chilgok / 임실 Imsil / 울릉[ㄹㄹ] Ulleung / 대관령[대관령][ㄹㄹ] Daegwalllyeong >

정답 : ③

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6)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0, 57, 74)

< 보기 >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6)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 박 적중: p. 20, 57, 74)

公無渡河(공무도하) < 그대 물을 건너지 마오, >
 公竟渡河(공경도하) < 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
 墮河而死(타하이사) < 물에 빠져 죽으시니 >
 當奈公何(당내공하) < 이제 그대 어찌하리. >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고조선 때의 노래. 백수(白首) 광부(狂夫)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는데, 이를 괭리자고(霍里子高)가 듣고 그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들려주자, 여옥이 공후(箜篌)를 연주하면서 곡조를 만들어 불렀다는 기록이 중국 진(晉)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에 전한다. 작자를 여옥으로 보는 설도 있다. ≡공후인.

- * 물에 빠진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쓰라림.
- * 집단적인 노래가 아닌 개인적인 노래, 독백과 한탄(恨歎).
- * 물: '죽음'의 이미지[심상(心象)]가 들어있다.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X) → 서정시

◆ 황조가(黃鳥歌)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서사시가 아니라 서정시이다.

◆ 서사시(敍事詩):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영웅의 사적 따위를 서사적 형태로 쓴 시. 서정시, 극시와 함께 시의 3대 부문 가운데 하나로, 서양의 <일리아드>·<오디세이>, 우리나라 이규보의 <동명왕편>, 김동환의 <국경의 밤> 따위가 있다.

◆ 서정시(抒情詩):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 서사시·극시와 함께 시의 3대 부문으로 일컬어지며, 그리스 여성 시인 사포가 그 원조로 꼽힌다. = 주관시

◆ 황조가(黃鳥歌): 고구려 유리왕 3년(B.C.17)에 왕이 직접 지었다는 노래. 유리왕의 두 후실인 화희(禾姬)와 치희(稚姬)의 다툼으로 치희가 중국으로 달아나 버리자 왕이 치희를 찾으러 다녔으나 찾지 못하던 중에, 꼬꼬리 한 쌍이 정답게 노니는 모습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한역시가 <삼국사기>에 전한다.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X) → 번역한 시가 따로 전하지는 않고 최표(崔豹)의 <고금주>에 한시로 전한다.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공무도하가'에서 '물'은 '죽음'의 이미지[심상(心象)]로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X)

◆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임을 여인 슬픔을 노래하고 있을 뿐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백수광부의 아내도 뒤따라 물에 뛰어들어 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충성의 의미가 아닌 사랑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③

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7)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p.8 ~ 80) 완벽 정리)

< 보기 >

㉠ 임 그린 상사몽이 ㉡실솔의 낮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 낮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 ② ㉠, ㉢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 ④ ㉠, ㉢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7)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p.8 ~ 80) 완벽 정리)

㉠은 박효관의 시조로, 임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 임의 방에 들어가서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 박효관: 조선 고종 때의 가인(歌人)(?~?). 자는 경화(景華). 호는 운애(雲崖). 고종 13년(1876)에 제자 안민영과 함께 시가집 《가곡원류》를 편찬하였고, 가론(歌論)을 확립하였다. 노인계(老人契)와 승평계라는 가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시조 13수가 전한다.

㉢은 작자 미상의 시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① ㉡실솔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O)

◆ 실솔(蟋蟀):蟋(귀뚜라미 실)蟀(귀뚜라미 솔)

② ㉠, ㉢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O)

③ ㉣접동새는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O)

◆ 접동새 = 귀촉도 = 두견

④ ㉠, ㉢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X)

◆ ㉢의 작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 박효관의 시조이다.

정답 : ④

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8)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97, 279, 319, 459,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룬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8)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O)

◆ ‘가파르다’는 ‘르’불규칙 용언으로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면서 ‘ㄱ’이 덧붙여지는 활용을 한다. 따라서 ‘가파르다 - 가팔라 - 가파르니’ 등으로 활용한다.

◎영보이 암기tip) 새끼 임팔라는 산이 가팔라서 어미를 못 따라가고 있다.

< 임팔라 - 가팔라서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X) → 모자라서

◆ 모자라다: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 지능이 정상적인 사람에 미치지 못하다.

◆ 활용: 모자라, 모자라니

◎영보이 암기tip) 이 모자 누구 거야? 너는 모자 많으니 동생 줄 거니까 손대지 마라. 흑흑 엄마! 나도 모자 모자라서 대머리 아저씨한테 빌려 쓴 적이 얼마나 많다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동생 모자라서 숨길 수도 없고.. 너무해 ㅜㅜ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룬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O)

◆ 불사르다: 불에 태워 없애다. / 어떤 것을 남김없이 없애 버리다.

◆ 활용: 불살라, 불사르니

◆ ‘불사르다’는 ‘르’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ㄱ’이 덧붙여진다. 따라서 ‘불사라’가 아니라 ‘불살라(ㄹㄱ)’가 된다. < ‘르’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면서 ‘ㄱ’이 덧붙여지는 활용이다. < 예: 서두르다 - 서둘러 / 가파르다 - 가팔라 >

cf. ‘ㄹ’탈락: 모음 앞에서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규칙활용이다. < 예: 치르다 - 치러 / 담그다 - 담가 / 잠그다 - 잠가 >

◎영보이 암기tip) 영혼을 불살라서 열심히 살라는 말씀인가요? < 불살라서 - 살라는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O)

◆ 올바르다: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

◆ ‘올바르다’는 ‘르’불규칙 용언으로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면서 ‘ㄱ’이 덧붙여지는 활용을 한다. 따라서 ‘올바르다 - 올발라 - 올바르니’ 등으로 활용한다.

◎영보이 암기tip) 파스 어디다 발라? 어깨에만 발라? 아니, 몸 전체에 발라줘. 일명 ‘올발라’라 하지. ㅋㅋ < 파스 발라 - 올발라 >

정답 : ②

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9)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9)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 + 부사어’의 구조이다. (O)

◆ 연장(延長): 연(늘일 연) 長(길 장/어른 장)

1)길게(長) 늘이다(延). - 부사어 + 서술어

◆ 하산(下山): 下(아래 하) 山(되 산)

2)산(山)에서 내려오다(下) - 부사어 + 서술어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X)

◆ 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덩개’의 ‘덩-’, ‘어른스럽다’의 ‘어른’ 따위이다.

◆ 인간(人間): 人(사람 인/어근) 間(사이 간/어근) - 인간(人間)은 어근과 어근의 구조로 되어있다.

◆ 한국인(韓國人): 韓(나라 한/어근) 國(나라 국/어근) 人(사람 인/접미사)

◆ 인간(人間)에서 ‘인(人)’은 어근이지만 한국인(韓國人)서 ‘인(人)’은 접미사이므로 모두 어근이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O)

◆ 우정(友情): 友(벗 우/비자립적 어근) 情(뜻 정/단어) / 친구 사이의 정

◆ 우정(友情)은 비자립적 어근인 友(벗 우)와 단어 情(뜻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문(大門): 大(큰 대) 門(문 문) / 한 집의 주가 되는 출입문

◆ 대문(大門)은 비자립적 어근인 大(큰 대)와 단어 門(문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O)

◆ 고유어의 반복합성어는 보통 ‘홀짝홀짝’, ‘느긋느긋’, ‘새근새근’, ‘벌컥벌컥’ 등과 같이 같은 글자가 번갈아 나타나는 구성방식이다.

◆ 따라서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시시각각(時時刻刻): 각각의 시각

◆ 명명백백(明明白白):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함

정답 : ②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0)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74, 149, 150, 154, 158, 160, 161, 164, 168, 167, 169, 172)

-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0)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74, 149, 150, 154, 158, 160, 161, 164, 168, 167, 169, 172)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O)

◆ ‘열’은 수사 관형사로 단어 ‘길’과 띄어 쓴다. ‘한 길’도 마찬가지이다.

cf. 한길이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나 하나의 길, 같은 길을 의미할 때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물속’은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X) → 데칸고원은

◆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4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 또한 ‘데칸고원’은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

◆ 데칸고원: 인도의 남부에 있는 고원. 일반적으로는 나르바다강 이남의 인도반도 일대를 가리킨다. 서쪽은 아라비아해에 면하여 서고츠산맥을 이루고, 동쪽은 벵갈만에 면하여 동고츠산맥을 이룬다. 비옥한 레구르(regur) 흙으로 덮여 있어 목화가 많이 나며, 석탄·철·금강석·금 따위의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개정 전	개정 후
외래어에 붙을 때	그리스 어, 그리스 인, 게르만 족, 발트 해, 나일 강, 에베레스트 산, 발리 섬, 우랄 산맥, 데칸 고원, 도카치 평야	그리스어, 그리스인, 게르만족, 발트해, 나일강, 에베레스트산, 발리섬, 우랄산맥, 데칸고원 , 도카치평야
비외래어에 붙을 때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 낙동강, 설악산, 남이섬, 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 낙동강, 설악산, 남이섬, 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 이번 개정에 따라 띄어쓰기가 변경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제시된 말들은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하던 것들인데, 개정 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관계없이 모두 앞말에 붙여 쓰게 됩니다.

○ 가(街), 강(江), 고원(高原), 곶(串), 관(關), 궁(宮), 만(灣), 반도(半島), 부(府), 사(寺), 산(山), 산맥(山脈), 섬, 성(城), 성(省), 어(語), 왕(王), 요(窯), 인(人), 족(族), 주(州), 주(洲), 평야(平野), 해(海), 현(縣), 호(湖)
(총 26항목)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X) → 전봇대만큼

◆ ‘만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만큼’이 ‘용언(동사·형용사)’과 결합할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예: 먹을V만큼 먹어라. / 죽을V만큼 힘드니? / 돈을 벌V만큼 벌었다.)

◆ 만큼’이 ‘체언(명사·대명사·수사)’과 결합할 때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예: 이웃사촌만큼 가까운 사람도 없다. / 아내만큼 잘해 주는 사람이 있니? / 아침만큼은 꼭 챙겨 먹어라.)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X) → 주머니 만들기

◆ ‘주머니’와 ‘만들기’는 각각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정답 : ①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1)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 정리 ☺영보이 포인트 #42) 형태론 (p.569 ~ 574))

① 떠내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쭙어봤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1)

◆ 형태소(形態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야기책’의 ‘이야기’, ‘책’ 따위이다. / 문법적 또는 관계적인 뜻만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 성분.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 정리 ☺영보이 포인트 #42) 형태론 (p.569 ~ 574))

① 떠내려갔다: 뜨 + 어 + 내리 + 어 + 가 + 앓 + 다 = 7개

② 따라 버렸다: 따르 + 아 + 버리 + 었 + 다 = 5개

③ 빌어먹었다: 빌 + 어 + 먹 + 었 + 다 = 5개

④ 여쭙어봤다: 여쭙 + 어 + 보 + 앓 + 다 = 5개

정답 : ①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 정리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p.377 ~ 394))

① 묻다(問) ②답다(暑) ③ 낫다(愈) ④놀다(遊)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 정리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p.377 ~ 394))

① 묻다[問]: ‘묻다(問/ask)’는 ‘물어, 물으니, 묻고’ 등으로 활용을 하는 ‘ㄷ’불규칙 용언이다.

◆ ‘ㄷ’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변함(예: 긴다, 묻다[問], 본다, 싣다 등)

cf. ‘묻다’가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로 쓰이거나 ‘물건을 흠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아 덮다.’로 쓰일 때에는 규칙 용언으로 ‘묻어, 묻으니, 묻는’ 등으로 활용한다.

② 덩다[暑]: ‘덩다(暑)’는 ‘더워, 더우니’ 등으로 활용을 하는 ‘ㅂ’불규칙 용언이다.

◆ ‘ㅂ’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ㅂ’이 모음 앞에서 ‘오/우’로 변함(예: 굽다[炙/bake], 높다, 덩다, 줍다 등)

③ 낫다[愈]: ‘낫다[愈)’는 ‘나아, 나으니, 낫는’ 등으로 활용을 하는 ‘ㅅ’불규칙 용언이다.

◆ ‘ㅅ’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ㅅ’이 모음 앞에서 탈락함(예: 낫다, 붓다, 잇다, 짓다 등)

④ 놀다[遊]: ‘놀다’는 ‘놀아, 노니, 노오’ 등으로 활용을 하는 ‘ㄹ’탈락 규칙 용언이다.

◆ ‘ㄹ’탈락 규칙 용언: ‘ㄴ, ㅂ, ㅅ, -(으)오, -(으)ㄹ’ 앞에서 어간의 받침 ‘ㄹ’이 탈락함.(예: 거칠다, 날다, 녹슬다 등)

정답 : ④

13.<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3)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25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p.8 ~ 80))

< 보기 >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하느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헤 낫드니.

-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3)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25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p.8 ~ 80))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노라. <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하느 것가. < 굶주려 죽을진들 고사리까지 먹어야 하겠는가? >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헤 낫드니.< 비록 푸성귀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느냐? >

◆ 성삼문의 시조로 사육신의 절개를 담고 있다.

◆ 사육신(死六臣): 조선 세조 2년(1456)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여섯 명의 충신. 이개, 하위지, 유성원, 성삼문, 유응부, 박팽년을 이른다.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O)

◆ 성삼문: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18~1456).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 집현전 학사로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세조 원년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었다. 저서에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O)

◆ 수양산은 중국의 산(山)을 가리키나 이 시조에서는 '수양대군'을 의미하여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 중의법(重義法):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겹쳐 표현함으로써, 언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여러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수사법. “청산리 벽계수야”에서 ‘벽계수’ 따위이다.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O)

◆ ‘백이와 숙제’의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백이(伯夷): 중국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기의 현인(?~?). 이름은 윤(允). 자는 공신(公信).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려고 했을 때, 아우인 숙제(叔齊)와 함께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어 죽었다.

◆ 숙제(叔齊): 중국 은나라 말기의 현인(賢人)(?~?). 이름은 지(智). 자는 공달(公達).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치려고 할 때 형 백이(伯夷)와 함께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양산에 숨어 살다가 굶어 죽었다.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X)

◆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됨에 따라 단종에 대한 성삼문의 충성과 절개를 읊은 시조이다.

◆ 계유정난(癸酉靖難):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수양대군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 10월 10일의 정변으로, 김종서·항보인 등은 피살되고 안평대군은 사사(賜死)되었다.

정답 : ④

14. <보기>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30, 79,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 (p.8 ~ 80))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 보기 >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國총 至지국國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뛰노는다.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弱약笠笠은 씨 잇노라, 綠綠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국國총 至지국國총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
대박 적중: 30, 79,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p.8 ~ 80))**

우는 거시 벉꾸기가 푸른 거시 벉들슌가. < 우는 것이 벉꾸기인가 푸른 것이 벉들 슌인가 >
이어라 이어라 < 배 저려야 배 저어라 >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날락들락 >
至지국悤총 至지국悤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쥬노는다. <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물고기 뛰어나다, >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 연잎에 밥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닻 올려라 닻 올려라 >
靑靑莢약笠립은 써 잇노라, 綠綠蓑사衣의 가져오나. < 청약립은 (머리에) 쓰고 잇노라, 녹사의
를 가져 오느냐 >
至지국悤총 至지국悤총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좇는 것인가, 나를 좇는
것인가 >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

- * 조선 효종 2년(1651)에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강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춘·하·추·동 각 10수씩 모두 40수로 되어 있으며, 《고산유고》에 실려 있다.
- * 시각과(우는 것) 청각이(푸른 것) 겹쳐져 입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함.
- * 어촌의 풍요로운 모습
- * 청약립: 푸른 갈대로 만든 갓.
- * 녹사의: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 도롱이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X)
 - ◆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강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O)
 - ◆ 시각과(우는 것) 청각이(푸른 것) 겹쳐져 입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O)
 - ◆ 대구법: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 ◆ '우는 것이 벉꾸기인가 푸른 것이 벉들 슌인가'로 알 수 있듯이 대구법을 사용함
-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O)

정답 : ①

15.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5) (2019 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p. 33, 38, 39, 65, 70, 71, 75, 82, 83, 74, 170, 176, 177, 276, 288, 289, 320, 330, 331)

< 보기 >

썩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轡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① 髀肉之嘆 ② 招搖過市 ③ 不識泰山 ④ 麥秀之嘆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5)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p. 33, 38, 39, 65, 70, 71, 75, 82, 83, 74, 170, 176, 177, 276, 288, 289, 320, 330, 331)

썩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 썩나무(떨나무) 실은 천리마(능력이 뛰어난 자신)를 알아 볼 사람 누가 있으리 >
십년(十年) 역상(轡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 십년 동안 마구간에 갇혀 있듯이 (보잘것없는 일만 하고) 어쩌할 도리가 없이 다 늙었도다, >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어디서 살진 쇠양마(능력 없는 양반들)는 우쭐거리느구나, >

*김천택의 시조로 능력이 뛰어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고 보잘것없는 일만 하는 자기를 한탄하고 살만 찌고 능력 없는 양반들은 우쭐거리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김천택: 조선 영조 때의 가인(歌人)(?~?). 자는 백함(伯涵)·이숙(履叔). 호는 남파(南坡). 평민 출신으로 창곡(唱曲)에 뛰어났으며, 김수장 등과 함께 경정산 가단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영조 4년(1728)에 《청구영언》을 편찬하여 시조 정리와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의 시조 57수가 《해동가요》에 전한다.

- ① 髀肉之嘆(비육지탄): 髀(넓적다리 비) 肉(고기 육) 之(갈 지) 嘆(탄식할 탄)

1)의미: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삼국지' '촉지(蜀志)'에서 중국 촉나라 유비가 오랫동안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여 넓적다리만 살쥔을 한탄한 데서 유래한다.

- ② 招搖過市(초요과시): 招(부를 초) 搖(흔들 요) 過(지날 과) 市(저자 시)

1)의미: 남을 부르거나 흔들어 이목을 끌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으로, 허풍을 치며 시끄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

- ③ 不識泰山(불식태산): 태산은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못 알아봄

- ④ 麥秀之嘆(맥수지탄): 맥수지탄(麥秀之嘆): 麥(보리 맥) 秀(빠어날 수) 之(갈 지) 嘆(탄식할 탄)

1)의미: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2)영어사전: sigh(한숨을 쉬다, 탄식하듯 말하다), lament(애통하다, 한탄하다)

◆ 麥秀之嘆(맥수지탄)은 나라의 멸망을 한탄하는 의미인데, 위 김천택의 시조와는 무관하다.

* 유의어 < 망국지탄, 서리지탄 >

1)망국지탄(亡國之歎): 亡(망할 망) 國(나라 국) 之(갈 지) 歎(탄식할 탄)

a)의미: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 것에 대한 한탄.

2)서리지탄(黍離之歎): 黍(기장 서) 離(떠날 리(이)) 之(갈 지) 歎(탄식할 탄).

a)의미: 나라가 멸망하여 옛 궁궐터에는 기장만이 무성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영고성쇠가 무상함을 탄식하며 이르는 말.

정답 : ④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6)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28, 235 /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56, 195, 219, 311)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6)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28, 235 /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56, 195, 219, 311)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O)

☺영보이 암기tip) 가짜 멸치라도 먹을 것이 가멸차다. 아주 풍족하고 좋다.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O)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X)

◆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영보이 암기tip) 아저씨, 뽕튀기 서비스 좀 주세요. 많이 많이 안다미로 주세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안다미로 줄게. 고맙습니다. 찹찹 찹찹~. 그런데 애야, 일하고 있는데, 찹찹거리며 먹지 마라. 짜증나니까 얼른 집에 가라.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가며 살피다 (O)

☺영보이 암기tip)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툇질을 하고 난리야! 내 밥에 떨어진 거 아니야? 찾으려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나는 밥 속까지 살살이 살피보며 툇아보았다.

정답 : ③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7)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5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p.8 ~ 80) 완벽 정리)

< 보기 >

나라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 할씨 < 나라의 말이 중국의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 >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

ㅁ춤내 제 ㅼ들 ㅅ리려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 마침내 제 뜻을 능히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

내 이를 爲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字를 밍?노니 < 내가 이를 위하여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 >

사람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ㅼ매 便宜키 호고져 흙 ㅅ르미니라 <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 ① < 보기 >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려’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ㅁ’와 ‘ㅼ’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7)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5 ☺영보이 포인트 #2) 고전 문학(p.8 ~ 80) 완벽 정리)

① < 보기 >는 한 문장이다. (X) → 두 문장

- 1) 나라의 말이 ~ 사람이 많으니라.
- 2) 내가 이를 위하여 ~ 따름이니라.

② 밑줄 친 ‘시려’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X)

◆ ㅁ춤내 제 ㅼ들 ㅅ리려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 마침내 제 뜻을 능히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O)

- ◆ 내 이를 爲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字를 밍?노니 < 내가 이를 위하여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 >
- ◆ 세종대왕 내가 ~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 ~ .

④ ‘ㅁ’와 ‘ㅼ’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X)

- ◆ ‘ㅁ’와 ‘ㅼ’는 발음이 다르고 ‘ㅼ’는 양성모음 ‘ㅁ’와 ‘ㄴ’의 중간발음이다.

정답 : ③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8)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65 /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542 ~ 568) 완벽 정리)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닳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보기 >

- ① 차고 슬픈 것 ② 새까만 밤 ③ 물먹은 별 ④ 닳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8)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65 /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542 ~ 568) 완벽 정리)

- ◆ 이 시는 정지용의 「유리창」(1930)이다. < 출전: 조선지광 >
- ◆ 죽은 아이를 가리키는 것: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물 먹은 별, 닳, 산새
- * 유리를 닦는 것: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의 행동
- ◆ ‘새까만 밤’은 시간적 배경일 뿐이다.

정답 : ②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9)

< 보기 >

-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19)

③ ㉡-㉠-㉣-㉢ (O)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문장의 정의를 들고 글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주제문이라 제일 앞에 온다.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어절의 정의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과 ㉣보다 앞에 온다.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의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로 보아 문장의 꼬리를 물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의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로 보아 ㉠ 다음에 ㉢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 ㉢의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로 보아 ㉣ 둘째 문장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 ③

20.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 20)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17, 120, 122, 129)

< 보기 >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A책형 문20)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17, 120, 122, 129)

◆ ‘유학자들은 ~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 정약용은 ~ .’로 보아 주희와 정약용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예시’를 사용하였다.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X)

◆ 분류를 사용하였다.

◆ 구분(區分): 상위 개념(큰 개념)의 항목을 하위 개념(작은 개념)의 항목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 시(상위 개념) > 서정시, 서사시, 극시(하위 개념)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X)

◆ 지정을 사용하였다.

◆ 지정: 지정은 가장 단순한 설명의 방법으로 사물을 지적하듯이 말하기를 통하여 지적하는 방법이다.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O)

◆ ‘그 예로 ~’로 보아 ‘예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X)

◆ 곤충의 몸을 머리, 가슴, 배 등으로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分析): 내용을 구성 요소들로 자세히 나누어 봄

정답 : ③

- 영보이 저서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판매 중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판매 중 >

◆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

2019서울시 1회 9급 국어(A책형) 영보이 국어 자세하고 재미있는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